|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 설명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
|---|---|---|

보도시점 2026. 11. 23.(월) 배포 시 배포 2026. 11. 23.(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주요 보도내용 〉

11월 23일(월) 한국일보 「맨날 소고기 사 먹으면 농어촌이 살아날까」 칼럼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기존 민생복지 예산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까지 사업에 투입하고, 수출로 번 돈을 소고기 사 먹는 데 쓴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고,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생산자 재투자로 연결되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어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은 해당 지역의 인구(5.0%↑) 증가뿐만 아니라, 가맹점(17.9%↑)과 신규 창업(913개소) 등 경제·사회적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신규 창업과 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에 미용실이 등장하고, 로컬장터와 이동장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생겨나 지역 주민들이 인근 도시나 읍내로 나가야 했던 불편함이 줄고, 보다 가까이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매개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기회가 늘고,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지역 축제 수익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입·세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 및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조정한 6개 사업 중 일부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는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2026년 총사업비는 국비·도비를 더해 369억 원 규모이고, 10월 기준 19,498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언급된 기존 사업 대비 예산 규모와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이 각각 5%p씩 낮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지방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취지와 성격이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목적과 부합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와 같이 내년에도 농어촌특별세를 해당 소요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업하여 시범사업의 경제·사회·자치 분야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시행 지역과 비시행 지역 간 비교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및 지역사회 변화 등을 심층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 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br>농촌소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정아름 (044-201-2811) |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아림 (044-201-2820) |
| | | | 사무관 | 박건우 (044-201-2817) |
| | | | 사무관 | 박정곤 (044-201-28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